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September 2024 Issue | Vol. 6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NEDA, 하반기 더 빠른 성장 전망
—page 1-2
- 신한은행, 필리핀의 한국 투자 유치
지원에 합의 —page 2
- 올해 성장 목표 달성, BSP 전해 —page 3
- 6월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 4년 만에
최저 —page 3-5
- 기술에 정통한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Globe의 네트워크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page 5-6
- 일본, 전 통화 외교관 간다를 ADB 총재로
지명 —page 6
- 중국이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동남아시아 석탄 거래 증가 전망
—page 7

NEDA, 하반기 더 빠른 성장 전망

September 12, 2024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물가 상승 둔화와 정책
금리 인하 속에서 하반기에 상반기의 평균 6%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가경제개발청(NEDA)이 밝혔다.

"이제 물가가 낮아지고, 정책 금리가 낮아지며, 노동 시장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
NEDA 청장은 수요일 상원 청문회 후 비즈니스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2분기에는 GDP가 6.3% 성장하여 상반기 성장률을 6%로 끌어올렸다.

"우리는 연간 6~7%의 GDP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리사칸 청장은 말했다.

그러나 8월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최저치인 3.3%로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리사칸 청장은
경제가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에 민감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은 평균 3.6%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목표 범위인 2~4% 내에서
안착하고 있다.



People shop for school uniforms at a market in Marikina, July 17, 2024.
— PHILIPPINE STAR/WALTER BOLLOZOS

인플레이션 하락세로 인해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지난 8월 거의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17년 만에 최고치인 6.5%에서 정책금리를 25bp(기준포인트) 인하하여 6.25%로 낮췄다.

발리사칸 청장은 낮아진 정책 금리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과 미국 중앙은행의 예상되는 완화 경로는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특히 연준(Fed)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정책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 있는 더 큰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기업들이 듣고 있다면, 그들의 투자 계획을 재고할 가능성이 큼니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4분기에 추가로 25bp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올해 남은 두 차례의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과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다.

한편, BSP의 필리핀 정책 분석 모델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은 정부의 목표 범위 내에서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2년 동안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생산과 잠재 생산의 차이인 산출 격차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 조건의 전반적인 균형은 정책 기간 동안 수요 기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임을 시사합니다,"라고 중앙은행은 2024년 8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밝혔다.

BSP는 건설 지출의 증가와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의 적시 실행 및 확대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은 2025년과 2026년의 성장 목표인 6.5-7.5%와 6.5-8%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ont. page 2]

NEDA, 하반기 더 빠른 성장 전망

[Cont. from page 1]

BSP는 송금과 임금 인상에 의해 촉진된 소비 증가가 누적된 금리 인상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기간 동안 국내 생산을 잠재 생산에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BSP는 말했다.

BSP는 또한 노동 시장 상황의 개선과 지속적인 투자 성장이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BSP는 강력한 경제 활동과 안정적인 인프라 지출로 인해 생산성 성장 또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 개혁들이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 활동을 활성화하며 국가의 잠재 생산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with Aaron Michael C. Sy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9/12/620897/neda-sees-faster-growth-in-2nd-half/>

신한은행, 필리핀의 한국 투자 유치 지원에 합의

September 10,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BoI)는 한국의 신한은행(주)과 협력하여 필리핀에 대한 한국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기다리면서 BoI와 신한은행 간의 협력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무역부 차관이자 BoI 관리 책임자인 세페리노 S. 로돌포가 화요일 성명에서 말했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은 FTA의 이점을 최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점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BoI에 따르면, 필리핀은 재생 에너지, 핵심 광물 가공,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한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심이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첨단 기술 농업, 반도체 및 전자, 고급 제조업 분야를 탐색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글로벌 비즈니스 촉진 부문장인 장성은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필리핀이 이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적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BoI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맞춤형 금융 솔루션과 현지 시장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필리핀 시장에서 성공적인 확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장 부문장이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양측은 투자 사절단 파견, 비즈니스 매칭 활동, 정보 교환, 투자자 회의 등 투자 촉진 이니셔티브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BoI는 별도의 성명에서 BDO 유니뱅크(BDO Unibank, In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투자 세미나, 홍보 사절단 파견, 비즈니스 매칭 활동을 공동으로 조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필리핀에서의 사업 지침, 산업 정보, 관심 있는 투자 프로젝트,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성장을 넘어서 필리핀 경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이며, 이는 시장 기반 도구로 민간 부문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로돌포 씨가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 최대의 종합 은행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파트너십은 BoI가 필리핀 은행과 투자 촉진을 위한 첫 번째 MoU를 체결한 것이다.

"무역산업부와 BoI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고 필리핀 경제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BDO의 그룹 책임자이자 기관은행 그룹의 부회장인 찰스 M. 로드리게스가 말했다.

"우리의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9/10/620600/shinhan-bank-agrees-to-help-phl-attract-investment-from-s-korea/>

올해 성장 목표 달성, BSP 전해

September 12, 2024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하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경제는 올해 6%에서 7%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금리 인상이 수요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2025년과 2026년에 설정된 목표를 하회할 수 있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밝혔다.

BSP는 8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GDP 성장률이 각각 2025년과 2026년의 목표인 6.5%에서 7.5%와 6.5%에서 8%를 하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성장 전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강력한 건설 지출과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의 적시 실행 및 확대 적용에 의해 추진될 것입니다,”라고 BSP는 말했다.

경제는 또한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와 공급 조건의 전반적인 균형은 향후 몇 년간 수요 기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필리핀 정책 분석 모델(PAMPh) 추정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는 산출 격차가 약간 부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며, 2026년에야 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 임금 상승과 안정적인 해외 필리핀 송금에 의해 촉진된 소비 증가가 이전 정책 금리 조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기간 동안 국내 생산을 잠재 생산에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BSP는 말했다.

노동 시장 조건의 개선과 지속적인 투자 성장이 경제의 잠재 생산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성의 성장은 강력한 경제 활동과 안정적인 인프라 지출로 인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혁 또한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 활동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잠재 생산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필리핀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경제는 2분기에 6.3% 성장하여, 이전 분기의 5.8% 성장률과 1년 전의 4.3% 성장률보다 빨라졌다.

한편, BSP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의 글로벌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성장 전망에 대한 위험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우려로 인한 단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라고 BSP는 밝혔다.

“상승 위험은 2024년 주요 경제국의 선거 지출로 인한 단기 재정 자극과 예상보다 빠른 통화 정책 완화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IMF는 2024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2%, 2025년에는 3.3%로 예상하고 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9/12/2384541/growth-target-year-says-bsp>

6월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 4년 만에 최저

September 11, 2024 | Aaron Michael C. Sy | BusinessWorld



JOHN GUCCIONE-PEXELS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이 6월에 4년 넘게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화요일 보고했다. 이는 모든 투자 수단에서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BSP의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6월의 순유입은 5억 5천5백만 달러에서 3억 9천4백만 달러로 29%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는 5월의 5억 1천만 달러에서 27.55% 감소했다.

6월의 순유입은 2020년 4월에 기록된 3억 1천4백만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Cont. p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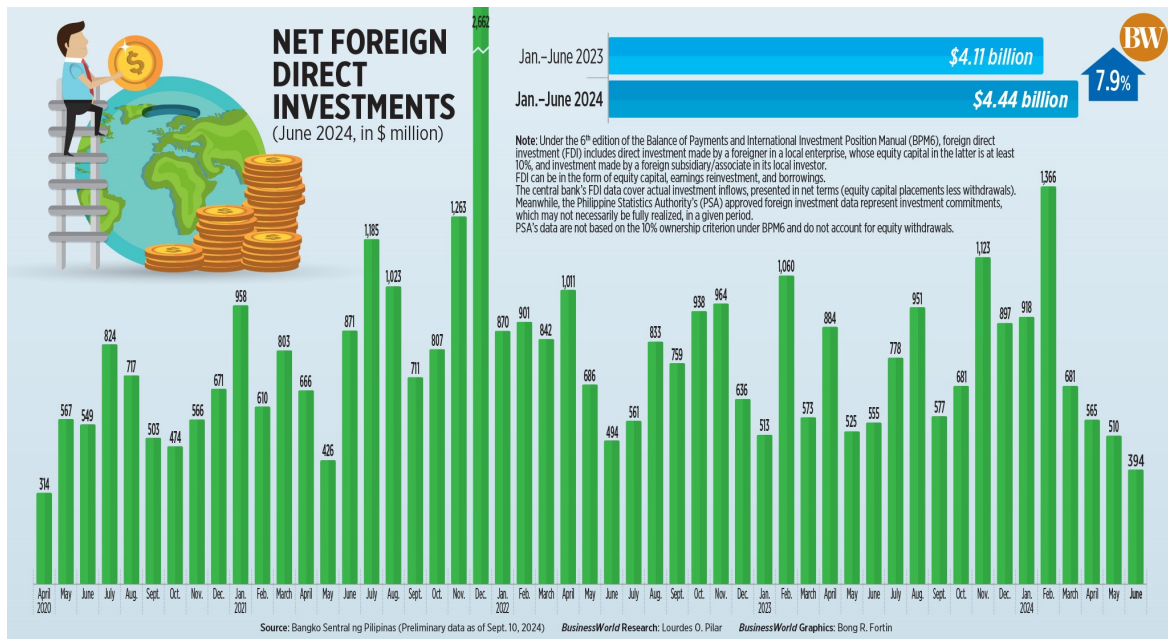


Buildings in Ortigas business district dwarf houses as seen from Bonifacio Global City in Taguig.

Michael Varcas, File

6월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 4년 만에 최저

[Cont. from page 3]



“이 감소는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FDI) 구성 요소 전반에서 순유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라고 BSP는 말했다.

비거주자의 채무 증권에 대한 순투자는 지난해 3억 4백만 달러에서 2억 1천3백만 달러로 30% 감소했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직접 투자자와 필리핀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의 상호 대출 또는 차입을 포함한다.

이익 재투자를 제외한 자기자본에 대한 순투자도 지난해 1억 1천1백만 달러에서 7천4백만 달러로 33.2% 감소했다.

자기자본 투자는 지난해 8천7백만 달러에서 3천8백만 달러로 34.09% 감소했으며, 인출은 38.1% 감소하여 1천3백만 달러로 줄었다.

이익 재투자도 지난해 1억 4천만 달러에서 1억 7백만 달러로 23.4% 감소했으며, 자기자본 및 투자 펀드 주식에 대한 투자도 27.89% 감소하여 1억 8천1백만 달러로 줄었다.

출처별로, 자기자본 투자는 주로 일본(47%)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15%), 스웨덴(14%), 싱가포르(14%)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48%), 부동산(18%), 도매 및 소매업(16%), 금융 및 보험(11%) 분야에 투자되었다.

상반기 순유입 증가

한편, 상반기 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은 지난해 41억 달러에서 44억 달러로 7.9% 증가했다고 BSP 데이터는 밝혔다.

자기자본 및 투자 펀드 주식에 대한 투자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동안 32.7% 증가하여 17억 1천만 달러에 달했다.

자기자본에 대한 순외국인 투자도 62% 증가하여 11억 9천7백만 달러로 늘었다. 투자금은 57.9% 증가하여 11억 1천5백만 달러가 되었고, 인출은 41.5% 증가하여 2억 6천1백만 달러에 달했다.

이들 투자의 대부분은 영국(52%)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본(30%)과 미국(7%)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77%)과 부동산(10%) 산업에 투자되었다.

한편, 채무 증권에 대한 순투자는 지난해 28억 2천1백만 달러에서 27억 2천5백만 달러로 3.4% 감소했다.

이익 재투자도 6.7% 감소하여 5억 1천4백만 달러로 줄었다.

6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이 감소한 것은 높은 금리 때문이며, 당시 시장은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완화 사이클 시작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했기 때문이라고 리살 상업 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L. 리카포트가 Viber 메시지를 통해 말했다. [Cont. page 5]

6월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 4년 만에 최저

[Cont. from page 4]

통화위원회는 8월 15일 정책 금리를 25bp 인하하여 6.25%로 조정했으며, 이는 거의 4년 만의 첫 금리 인하 조치이다. 금리 인하 이전에는, BSP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450bp 인상을 단행한 후 6.5%의 17년 이상 최고 금리를 6차례 연속 회의에서 유지했다.

BSP 총재 엘리 M. 레올로나 주니어는 올해 안에 25bp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두 정책 회의는 10월 17일과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다.

한편, 연준(Fed)은 9월 17-18일 정책 회의에서 통화 완화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며,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25bp 인하와 함께 올해 총 100bp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25bp 인상한 후, 연방 기금 목표 금리를 5.25%-5.5% 범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지난 분기 동안 지역 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력한 경제 성장을 기록하여 6월까지의 6개월 동안 FDI 유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리카포트 씨가 말했다.

필리핀의 GDP는 2분기에 6.3% 성장하여 상반기 성장률이 6%에 이르며, 정부의 올해 6-7% 성장 목표의 하한선에 도달했다.

6.3%의 성장률은 4월부터 6월까지 기간 동안 필리핀 GDP 성장률이 베트남(6.9%)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기록했으며, 말레이시아(5.8%), 인도네시아(5%) 및 중국(4.7%)을 앞섰다.

“향후 몇 달 동안, BSP와 Fed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 속에서 대출 비용을 낮추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글로벌 투자, 사업 및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FDI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리카포트 씨가 말했다.

“7월과 8월 동안 BSP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만큼, [FDI]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유니온뱅크 필리핀의 수석 경제학자 루벤 카를로 O. 아순시온이 Viber 메시지를 통해 말했다.

중앙은행은 2024년을 95억 달러의 FDI 순유입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순유입이 전년 대비 6.6% 감소하여 89억 달러에 그쳤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9/11/620585/june-fdi-net-inflows-at-four-year-low/>

기술에 정통한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Globe의 네트워크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eptember 11, 2024 | Tyrone Jasper C. Piad @TyronePiad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글로브 텔레콤(Globe Telecom Inc.)이 확장 모드에 있는 동안, 예상되는 기술에 정통한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추가된 네트워크 인프라가 소비자들에 의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Fitch Solutions의 BMI 연구 부서가 밝혔다.

최신 보고서에서 이 연구 부서는 “경제 전망의 둔화”로 인해 한국 여행자들이 필리핀 여행 예약을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소비자 지출을 저해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 소비의 느린 회복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올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BMI는 “한국 소비자들이 여행 및 호스피탈리티를 포함한 비필수 지출을 줄이고, 주거, 공공요금, 식료품 등 필수 지출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출 변화는 여행 감소와 한국 내 지역 리조트 선호 증가로 이어져 필리핀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BMI는 글로브가 네트워크 사용의 둔화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선불 여행 SIM 카드(가입자 식별 모듈)를 구매하고, 로컬 통신 인프라를 이용하여 연결성을 유지한다. [Cont. page 6]



기술에 정통한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Globe의 네트워크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ont. from page 5]

보고서는 “관광객들이 방문 중 더 높은 속도의 연결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술에 정통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반기 동안, 아알라 그룹이 주도하는 회사는 352개의 새로운 기지국을 구축하고 1,942개의 기존 모바일 기지국을 업그레이드했다.

글로브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56개의 새로운 5G 기지국을 추가로 배치했다. 5G 커버리지는 수도권에서 98.45%, 비사야스 및 민다나오의 주요 도시에서 94.19%에 이른다.

이와 함께, 통신 대기업은 디지털화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용량도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반 ST Telemedia Global Data Centers와의 합작 회사인 STT GDC 필리핀은 페어뷰 케손시티에 124메가와트(MW) 데이터 센터의 착공식을 가졌다. 이 시설은 83,000 제곱미터(m²)의 총 바닥 면적에 걸쳐 네 개의 건물로 구성되며, 건설 비용은 약 10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인 28MW 규모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초에 가동될 예정이다.

STT GDC 필리핀은 지난해 카비테에 7,800만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착공식도 진행했으며, 2025년 중반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6MW 허브는 4,500m² 이상의 총 바닥 면적을 가진 2층 건물이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79544/decline-of-tech-savvy-korean-tourists-may-slowdown-globes-network-usage>

일본, 전 통화 외교관 칸다를 ADB 총재로 지명

September 10, 2024 | Reuters | BusinessWorld



도쿄 – 일본은 전직 외환 담당 최고 외교관인 칸다 마사토를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기 총재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화요일에 밝혔습니다.

1966년에 설립된 ADB의 수장은 항상 일본 출신이 맡아왔으며, 일본과 미국은 ADB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 때문에 칸다는 ADB 총재직에 오를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즈키 재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칸다) 후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제에 정통하며, 여러 나라와 국제 기관의 고위 관계자들과 깊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ADB를 이끌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칸다 씨가 선출될 경우, 2025년 2월 23일에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월요일에 발표한 **아사카와 마사츠구**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차기 총재 선거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능력 기반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칸다 씨는 국제 문제 담당 부재무관으로 3년간 근무한 뒤 7월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2022년과 2024년에 엔화 매입 개입을 이끈 바 있습니다. 그는 현재 내각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직 최고 외환 담당 외교관이었던 아사카와 씨는 2020년 1월에 ADB 총재로 취임하여,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감독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여러 신흥 경제국들은 글로벌 금융 기관에서 선진국 출신이 최고 자리를 맡는 전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세계은행은 미국 출신 관리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 출신들이 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Reuters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world/2024/09/10/620412/japan-nominates-ex-currency-diplomat-kanda-to-head-adb/>

중국이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동남아시아 석탄 거래 증가 전망

September 11, 2024 | By Reuters | Philippine Daily Inquirer

The Manila Times®

누사두아, 인도네시아 —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10년 동안 석탄 거래와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석탄광업협회(ICMA)는 2025년에 중국과 인도의 수입이 정점에 이를 것이며, 이로 인해 오염을 유발하는 연료의 전 세계 해상 무역량 증가가 멈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MA 회장 **프리야디**는 Coaltrans Asia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ICMA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간 석탄 수입량이 2023년 1억 4,090만 톤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3% 증가하여 1억 7,09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인 베트남의 전력 생산은 석탄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성장 시장으로 평가된다고, 회의에 참석한 거래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국영 기업 비나코민(Vinacomin)의 석탄 거래 부문 부총괄 매니저인 **딘 팡 중**은 올해 말까지 베트남이 6,6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분석 업체 **Kpler**에 따르면, 이는 2023년 4,780만 톤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2035년까지 연간 8,600만 톤의 석탄 수입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총 소비량의 약 70~75%가 전력 생산에 사용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Kpler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의 석탄 수입은 8월 31일 기준으로 8개월 동안 7.6% 증가했으며, 말레이시아의 석탄 수입도 4% 증가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인도를 대체해 석탄 수출업자들에게 주요 성장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더 큰 경제권에서의 석탄 소비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10년 동안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열탄 수입은 2024년에 전년 대비 6.3% 증가하여 3억 9,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석탄 분석 플랫폼 **Sxcoal**을 운영하는 편웨이 디지털 정보 기술의 부총괄 매니저 **펑 둥빈**이 말했습니다.

인도의 석탄 거래 업체인 I-Energy Natural Resources의 수석 분석가 **리아 바스**는 이번 10년 동안 인도의 석탄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컨설팅 회사 **Bigmint**의 데이터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인도의 석탄 수입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여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석탄 화력 발전 사용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국영 **TNB Fuel Services**의 두 명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에너지 싱크탱크 **Ember**의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천연가스보다 석탄에 점점 더 의존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함께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에서 석탄 사용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다로 인터내셔널의 수석 시장 조사 매니저 **패트리샤 룬방가울**은 "인도네시아의 설치된 발전 용량의 평균 연령대가 비교적 젊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제련소는 배터리 제조업체에 공급하며 전기차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석탄 화력 발전이 증가하고 있다고 ICMA의 **프리야디**가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중국과 인도 같은 대형 청정 에너지 생산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가속화하기 위한 저렴한 자금을 제공하려는 계획에 진전이 없으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석탄 화력 발전국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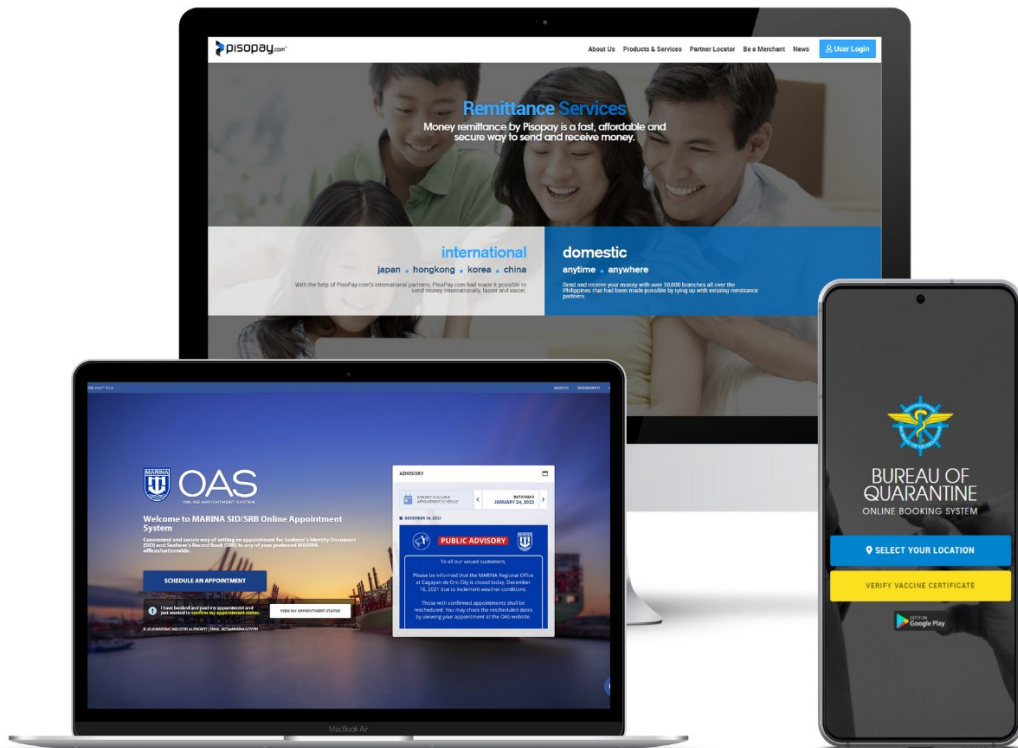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독립 전력 생산업자 협회 회장인 **아서 시마투판**은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석탄의 지속적인 사용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 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9/11/business/top-business/southeast-asia-seen-boosting-coal-trade-as-china-nears-peak/1970555>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